

혁거세 세력 등장 이전의 사로 육촌

Saro Six Villages Before the Appearance of Hyeokkeose Forces

저자 김병곤
(Authors) Kim, Byoung-gon

출처 [한국고대사탐구 24](#), 2016.12, 59-98(40 pages)
(Source) [Sogang Journal of Early Korean History 24](#), 2016.12, 59-98(40 pages)

발행처 [한국고대사탐구학회](#)
(Publisher) Society for the Study of Early Korean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87842>

APA Style 김병곤 (2016). 혁거세 세력 등장 이전의 사로 육촌. 한국고대사탐구, 24, 59-98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183.106.106.***
2021/09/10 09:5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혁거세 세력 등장 이전의 사로 육촌

김 병 곤*

- I. 머리말
- II. 사서에 보이는 육촌
- III. 육촌의 위치와 사회발전단계
- IV. 육촌의 출자와 촌장
- V. 맺음말

【국문초록】

신라인들은 건국의 기층집단인 육촌민들이 고조선 멸망 이후 남하한 유민임을 기억했다. 그래서 고조선 멸망 이후 최초의 갑자년인 BC 57년을 건국 기년으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육촌장이 천강자이고 혁거세를 추대한 인물들로 소개되어 있다. 곧 육촌 관련 기사들을 고려하면 육촌은 혁거세집단보다 경주에 먼저 정착했던 조선 유민으로 이해된다.

고고학계에 따르면 사로국 건국은 위만조선의 문화역량을 경험한 혁거세 집단의 경주 유입과 연결시킨다. 박씨 집단보다 먼저 유입된 육촌은 연의 동방 경략 이후 비파형동검과 이형동기를 지닌 고조선 유민과 준왕의 남하시기에 경주에 정착한 세형동검과 주조철부를 지닌 고조선 유민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선진문화를 지닌 육촌민은 경주에 정착하며 기존 지식묘집단과 결합하여 주도권을 장악하였던 것이다.

육촌장이 촌장회의에 자제들을 동석시켰음은 육촌의 사회성격을 반영한다. 촌장은 시조 천강자의 직계 후손이라는 종교적 권위를 지니고 대대로 촌락 지배권을 소유했다. 곧 육촌은 공동의 조상신을 모시는 혈연으로 연결된 씨족사회이자 제정 일치적 성격이 강한 사회였다. 더욱이 육촌민의 남하시기 고조선은 사제왕의 성격을 가진 유력자가 다스리고 있었다. 당연히 육촌장도 이와 동일한 성격의 소유자였

* 동국대 강의초빙교수

다. 그러므로 신라에서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숭상하여 세상 사람으로부터 오랫동안 존경받은 전통적 존장자 자충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이다.

주제어 : 六村長, 古朝鮮 遺民, 天降者, 司祭王, 尊長者, 慈充.

I. 머리말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육촌은 신라의 시작점인 사료국의 기층 집단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山谷 間에 거주하던 (사료)육촌의 촌장들이 기원전 57년 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하여 사료국이 건국되었다. 『삼국유사』에는 좀 더 자세한 육촌에 대한 설명과 혁거세의 건국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수 연구자들은 양 사서에 기록된 사료국(신라)의 건국 과정을 기록 그대로 신뢰하는 경우가 드물다. 삼국 중 신라의 건국기년이 가장 빠른 것에 대한 불신은 당연한듯하나 건국기반이 된 육촌의 존재까지도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

신라건국 과정만이 아니라 대부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초기 기록에 대한 불신은 강하다. 특히 今西龍이나 末松保和가 奈勿王 이전의 기록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던 것은 이러한 경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¹⁾ 국내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불신은 오래 되었다.²⁾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발굴 조사 결과와 연계성이 높고 객관적 입장에서 편찬되었다는 『삼국지』 위지동이전의 한전 기사와 상충되는 바가 있

1) 今西龍, 『新羅史研究』, 近澤書店, 1933 ; 末松保和, 「新羅六部考」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253~254쪽.

2) 李德星, 『朝鮮古代社會研究』, 正音社, 1949 ;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599~600쪽 ; 文暻鉉, 「新羅國 形成過程의 研究」 『大丘史學』 6, 1973.

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는 3세기대 이미 진한을 제패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삼국지』 한전에는 여전히 진한 12국 중의 일국에 불과하다. 더불어 초기 왕들의 지나치게 긴 재위기간과 인접하지 않은 삼국 간의 접촉기사 등은 초기기록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킨다. 그러면서도 다수 학자들이 초기기사를 전적으로 부정하기보다 후대의 가필 속에 당시의 社會相이 반영되고 있다는 수정론의 입장을 취하며 고대사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³⁾

실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실린 신라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육촌과 촌장의 존재를 전적으로 불신하거나 역급 등으로 보기에 그 존재감이 너무 뚜렷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우선 육촌 관련 기사에 대한 기초적 검토와 더불어 육촌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견해의 문제점을 살펴봄에 육촌이 實在했음을 규명해 보겠다. 이를 기초로 사로국 건국 이전 실재했던 육촌의 사회적 양상과 발전 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육촌의 출자와 이들을 다스린 촌장들이 어떠한 성격의 인물이었는지 주목해 보고자 한다.

II. 사서에 보이는 육촌

1. 기초 자료 속의 육촌

고려시대 사서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신라(사로국)의 건국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분량이 많지만 논지 전개상 필요한 내용이므로 인

3) 金哲垸, 「新羅上古世系와 그 紀年」 『歷史學報』 17·18, 1972 ; 金元龍, 「三國時代의 開始에 관한 一考察」 『韓國考古學研究』, 一志社, 1987 ; 千寬宇,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1989.

용한다. 편찬시기가 앞선 『삼국사기』의 관련 기록부터 보자.

시조의 성은 박씨이고 휘는 혁거세이다. 前漢孝宣帝五鳳元年甲子四月丙辰(혹은 정월 십오일이라고도 한다) 즉위하여 居西干이라 하였는데, 당시 나이 십삼세로 국호를 徐那伐이라 했다. 이보다 먼저 朝鮮 遺民이 山谷之間에 六村을 이루어 分居하였다. 첫째 關川楊山村, 둘째 突山高墟村, 셋째 雋山珍支村(혹은 우진촌이라 한다), 넷째 茂山大樹村, 다섯째 金山加利村, 여섯째 明活山高耶村으로 이들이 辰韓 六部가 되었다. 古墟村長 蘇伐公이 楊山 기슭을 바라보니 蘿井 옆 숲 속에 말이 꿇어 앉아 울고 있었다. 이를 찾았는데 홀연히 말은 사라지고 단지 大卵이 있어 갈라 보니 어린아이가 나왔다. 이에 거두어 길러 십여 세에 이르니 유달리 풍채가 크고 어른스러웠다. 육부 사람들은 아이의 출생이 神異하므로 모두 우러러 받들었고 이때 이르러 그를 왕으로 추대했다. 辰人은 瓠를 차이라 하였다. 처음 大卵이 瓠와 같았기 때문에 차을 姓으로 삼았다. 居西干은 辰言으로 王을 말한다(혹은 貴人の 칭호이다).⁴⁾

지금 살펴보면 신라시조 혁거세가 전한오봉원년갑자에 개국하였다. 왕도는 길이가 삼천칠십오보이고 넓이는 삼천일십팔보 삼십오리이며 육부가 있다. 국호를 徐耶伐 혹은 사라 혹은 사로 혹은 신라라 하였다. 탈해왕 9년에 시림에서 雞怪가 있었으므로 다시 계림이라 이름하고 그 것으로 국호를 삼았다가 기림왕 10년에 다시 신라로 이름하였다.⁵⁾

한편 편찬 시기는 상대적으로 늦지만 『삼국사기』를 보완하겠다는 시각에서 편찬된 『삼국유사』에도 신라의 건국과정을 기록했는데 내용은 상대적으로 자세하다.

辰韓의 땅에 예로부터 六村이 있었다. 첫째는 關川楊山村으로 남쪽의 지금 曇巖寺 방면이다. 村長은 謁平인데, 처음에 (하늘에서) 瓢岩峰

4)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시조박혁거세거서간 원년.

5) 『삼국사기』 권34, 잡지3, 지리1.

에 내려와 바로 及梁部 李氏의 시조가 되었다. 둘째는 突山高墟村으로 村長은 蘇伐都利인데, 처음에 兪山에 내려와 바로 沙梁部 鄭氏의 시조가 되었다. 지금은 南山部라 하여 仇良伐 麻等烏 道北 廻德 等 南村이 이에 속한다. 셋째는 茂山大樹村으로 村長은 俱禮馬인데, 처음에 伊山에 내려와 바로 漸梁部 一云 牟梁部 孫氏의 시조가 되었다. 지금은 長福部라 하여 朴谷村 等 西村이 이에 속한다. 네 번째는 嘴山珍支村으로 村長은 智伯虎인데, 처음에 花山에 내려와 바로 本彼部 崔氏의 시조가 되었다. 지금은 通仙部라 하여 柴巴 等 東南村이 이에 속한다. 崔致遠이 곧 本彼部人이다. 지금 皇龍寺 남쪽과 味吞寺 남쪽에 古墟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바로 崔侯의 古宅이라고 하니 확실하다. 다섯째는 金山加利村으로 村長은 祗沱인데, 처음에 明活山에 내려와 바로 漢岐部 一云 韓岐部 裴氏의 시조가 되었다. 지금은 加德部라 하여 上下西知 乃兒 等 東村이 이에 속한다. 여섯째는 明活山高耶村으로 村長은 虎珍인데, 처음에 金剛山에 내려와 바로 翳比部 薛氏의 시조가 되었다. 지금에 臨川部라 하여 勿伊村 仍仇珍村 闕谷 等 東北村이 이에 속한다. 上文을 살펴보니 六部の 始祖는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 노례왕 9년 처음으로 육부명을 고치고 또 육성을 하사하였다. 지금 세속에서는 중흥부를 모로 하고, 장복부를 부모 하고, 임천부를 자로 하고 가덕부를女郎 하는데 그 실상은 자세하지 않다. 前漢地節元年壬子(古本에 이르기를 建虎元年 또는 建元三年 등이라고도 하나 모두 틀렸다) 三月 朔日에 六部の 始祖들이 각기 子弟들을 데리고 關川 岸上에 모여 의논하기를, 우리 위로 백성을 다스릴 君主가 없어 백성들이 모두 放逸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 어찌 德있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君主로 삼아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하지 않겠는가 하고는 높은 곳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하 蘿井 옆에 번개불 같은 이상한 기운이 땅위에 늘어져 있고 백마 한 마리가 꿰어앉아 절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윽고 그곳을 찾아가 보니 자주빛 알(청색 큰 알이라고도 한다)이 하나 있고 백마는 사람들을 보자 길게 울부짖으며 하늘로 올라갔다. 그 알을 갈라 童男을 얻었는데 외양이 단정하고 이름다웠다. (사람들이) 그를 경이롭게 여겨 東泉에서 씻기니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따라와 춤추며 天地가 진동하고 日月이 밝게 빛났다. 이로 인하여 赫居世王이라 이름하고(아마 鄉言일 것이다. 혹은 弗矩內王이라고도 하니 밝게 세상을 다스

린다는 뜻이다. 설명하는 자가 이르기를 ‘이는 西述聖母께서 탄생시킨 것이니 중국 사람들이 仙桃聖母를 찬양하여 賢者를 잉태하여 나라를 열었다는 말이 있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라.’ 하였다. 鷄龍이 상서를 나타내고 關英을 낳았다는 이야기도 서술성모의 현신을 말한 것이 아닐까) 位號를 居瑟邨(혹은 居西干이라고 하니 이는 그가 처음 입을 열어 스스로 일컫기를 ‘關智居西干이 한번 일어난다.’ 하였으므로 그 말로 인하여 일컫었는데, 이로부터 왕자의 존칭이 되었다)이라 했다. 당시 사람들이 다투어 축하하며 이르기를 ‘天子가 이미 내려오셨으니 마땅히 덕있는 女君을 찾아 그와 짝지어야 한다.’ 하였다. 이날 사랑리 關英井(혹은 娥利英井이라고도 한다)가에 鷄龍이 나타났는데 왼쪽 옆구리를 통해 童女가 탄생하였다(혹은 용이 나타나 죽으매 그 배를 갈라 동녀를 얻었다 한다). 자태와 용모가 특이하게 아름답았는데 입술이 닭 부리같이 생겨 장차 月城 北川에서 씻기니 부리가 스스로 떨어져 버렸다. 그런 까닭에 하천 이름을 撥川이라 하였다. 남산 서쪽 기슭에 궁실을 짓고 성스런 두 어린아이를 奉養하였다. 남자아이는 알에서 태어났는데 알이 마치 瓠와 같았고, 鄕人들은 호를 차이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성을 박이라 했다. 여자아이는 태어난 우물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 二聖의 나이가 13세에 이른 五鳳元年甲子에 사내아이를 세워 王으로 하고 이어서 여자아이를 세워 后로 삼고 나라 이름을 徐羅伐 또는 徐伐(지금 속세에서 京字를 訓으로 徐伐이라 하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혹은 斯羅 또는 斯盧라 하였다. 처음 왕이 雞井에서 태어났던 까닭에 혹은 雞林國이라고도 했으니 계룡이 상서로움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일설에는 탈해 왕대 숲에서 닭 울음소리를 듣고 김알지를 얻었던 까닭에 국호를 계림으로 고쳤다가 후세에 드디어 신라라는 국호를 정하였다고 한다. 나라를 61년 동안 다스리다가 왕이 하늘로 승천하였고 7일 후에 遺體가 땅에 흩어져 떨어지고 왕후 역시 돌아가셨다. 국민들이 합하여 함께 묻으려 했는데 큰 뱀이 가로막았으므로 五體를 각각 매장하여 五陵을 만들고 역시 蛇陵이라 하였다. 담엄사 북쪽 능이 이것이다.6)

우선 『삼국사기』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박혁거

6) 『삼국유사』 권1, 기이2, 新羅始祖 赫居世王.

세의 건국신화는 같은 책에 실린 주몽이나 온조의 건국담에 비해 분량상 (주기 포함) 소략하다. 이는 전승 부족이 아닌 유교주의적 합리사관에 입각한 의도적 개찬의 결과로 보인다. 『삼국유사』의 혁거세왕조를 보면 사로 건국과정에 대한 서술 분량이 제법 많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신이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식은 「백제본기」의 말미에서 “하늘에서 금궤가 내려온 까닭에 성을 김씨로 했다는 신라 고사(알지의 천강담)는 괴이하여 믿을 수 없지만, 전함이 오래되어 부득이하게 이야기를 잘라 낼 수 없었다.”라고⁷⁾ 하여 사가로서 述而不作의 자세를 드러내기도 했다.

『삼국유사』에 실린 혁거세의 건국신화와 비교하면, 『삼국사기』는 육촌에 대한 설명은 촌명 소개에 그쳤고 혁거세 천강의 신이함도 간결하게 처리하였다. 반면 『삼국사기』에 실린 주몽의 건국신화는 서술도 장황하고 신이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양서』⁸⁾나 『위서』⁹⁾에 보이는 고구려의 건국신화와 비교할 때, 『삼국사기』는 이에 대한 산삭이 거의 없었다. 아마도 중국 사서에 주몽신화가 적기되어 있었던 까닭에 이를 존중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관찬 사서인 『삼국사기』와 달리 『삼국유사』는 사찬인 까닭에 편찬자의 주관이 자유로이 개입될 수 있었다. 더구나 찬자 일연은 서두적인 기이편의 자서에서 신이사의 기록을 천명하였다. 그런 까닭에 본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이설을 註文으로 첨부할 수 있었고 신이 내용을 풍부히 기록했다. 자연히 『삼국사기』에 비해 기존 사료에 대해 상대적으로 삭탈의 여지가 적었지만 승려였던 일연의 입장이 강조되기도 했다. 그런 까닭에 혁거세의 건국신화는 혁거세왕호에 불거내왕이나 서술성모 등 불교적 설명

7)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論讚.

8) 『梁書』 권54, 열전48, 諸夷 東夷 高句麗.

9) 『魏書』 권100, 열전88, 高句麗.

이 주기되어 있다. 본문에는 알영이 계룡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불교적인 수식이 일부 보이나 대체로 재래의 토착신앙(천신신앙·수신신앙·수목신앙 등) 비중이 높다. 그러므로 『삼국유사』에 실린 사로국의 건국신화가 전승의 고유 원형을 보다 많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삼국사기』에 실린 각국 시조의 건국과정을 보면 고구려 주몽과 백제 온조 등은 영웅적인 면모와 혜안을 지닌 인물로 건국에 능동적 내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신라 시조 혁거세는 건국 과정에서 전혀 그러한 면모를 보이고 있지 않는 점은 양 사서 동일하다. 곧 혁거세는 천강 직후 촌장에 의해 거두어져 양육되어 왕으로 추대되는 수동적인 모습을 가졌다. 이러한 상황의 이면에는 혁거세를 국왕으로 추대해 사로국을 건국하는데 중요 역할을 한 육촌장의 존재가 있다. 특히 『삼국유사』에는 육촌의 명칭과 촌장의 천강 행적 그리고 해당 지역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다. 밑줄을 친 부분이 양 사서에 보이는 육촌에 대한 서술인데 분량의 비중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양 사서는 동일하게 혁거세의 등장 이전부터 토착 세력화한 육촌집단이 존재했음을 기록했다. 다만 육촌민 출자에 대해 『삼국사기』에는 ‘조선 유민’으로 되어 있지만, 『삼국유사』에는 “진한의 땅에 예로부터 육촌이 존재하였다.”라고 하여 차이가 있다. 『삼국유사』의 건국신화에는 육촌민의 출자를 조선 유민과 연결시킬 부분이 없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일연과 김부식이 참고한 건국신화의 전거가 달랐다. 그러나 『삼국사기』에는 육촌의 출자가 ‘조선 유민’이었음과 더불어 ‘육촌이 진한 육부’였음을 적기하여 최종적으로 『삼국유사』와 상통한다. 아마도 김부식은 후대 일연이 전거로 사용한 기사를 숙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은 유교주의적 합리사관에 입각하였지만, 동시에 사대주의적 태도를 가졌다고 비판받는다. 그러므로 김부식이 육촌의 유래를 고조선과 결부시킨 것은 문헌 기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막연

히 中國 聖賢이 東遷하여 이룩하였다고 생각되는 고조선 유민을 신라의 근본으로 내세운 것이라 보기도 한다.¹⁰⁾ 그러나 『삼국지』나 『후한서』 「한전」을 보면 진한 12국의 선은 ‘진세 망인’이며 사로국은 진한 소국의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비롯된 진한과 신라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는 『양서』를 지나 『북사』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함없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며 다양한 중국 사료들을 참고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를 따르거나 『삼국유사』 혁거세왕조의 내용처럼 ‘辰韓之地 古有六村’이라는 내용에 가깝게 기록할 여지가 있었다. 그렇지만 김부식은 『삼국지』 「한전」에서 비롯된 진한의 先[진한의 종·진세 망인] 관련 기사는 호공을 마한에 사신으로 보낸 기사의 찬¹¹⁾을 통해 부수적으로 언급하는데 그쳤다.

오히려 『삼국지』 「한전(마한조)」을 보면 조선 유민은 진한보다 마한과 직결시킬 만한 요소가 많다. 『魏略』 인용 조선 관련 기사와 더불어 조선 왕인 준왕과 궁인들의 망명 기사, 환·령제 말기의 漢 郡縣 백성의 韓國 유입 기사 등이¹²⁾ 모두 「마한조」에 있다. 「마한조」에는 『위략』 소인 王莽의 地皇 연간(A.D. 20~23) 廉斯鎰 기사가 있는데 戶來 등 漢人 천오백여명의 포로가 진한에 끌려온 사실이 적기되어 있기도 하다. 곧 『삼국지』와 『후한서』에 따르면 조선 유민과 군현의 백성은 마한으로 유입되었고, 진세 망인과 일부 漢人은 진한과 상관성이 있음을 서술했다. 이와 같은 『삼국지』 「한전」의 내용은 후대 편찬된 『진서』·『송서』 「한전」의 기본 전거로 활용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 사료로부터 자유로이 김부식은 육촌의 출처를 조선 유민으로 기록했다. 김부식이 사대주의적 입장에서 중국 사료만을 참

10) 丁仲煥, 「斯盧六村과 六村人의 出自에 대하여」 『歷史學報』 17·18合, 1962, 431~432쪽.

11)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시조 혁거세거서간 38년.

12) 『三國志』 卷30, 魏書東夷傳30, 韓傳.

고했었다면, 육촌의 조선 유민설은 출현할 수 없었다. 그러면 이 기사의 전거는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결과적으로 중국 자료의 활용도 아니고 전적인 창작도 아니라면 김부식이 『삼국사기』에 언급한 ‘조선 유민설’은 비중국적이지 전함이 오래되어 어찌할 수 없는 고유한 신라의 전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2. 육촌의 불신론과 실재성

『삼국유사』에는 각 촌장들의 始祖 神話라 할 만한 내용이 존재하는 점도 흥미롭다. 곧 육촌의 始祖가 모두 하늘로부터 산에 내려왔다는 것이다. 이병도는 이러한 육촌장의 이름과 천강 설화는 후대에 꾸민 설화라 하여 가치를 생각하지 않았고¹³⁾ 이후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신라 건국시조임에도 불구하고 건국 과정에서 수동적 위상을 가진 혁거세의 모습은 왕위를 교차했던 석씨왕족 시조인 탈해나 김씨왕족 시조인 알지의 탄생담에서도 동일하다. 삼성 시조들의 탄생 신화에 동일하게 나타난 이러한 이야기의 전개 양상은 기존의 선주집단과 후래집단의 결합을 상징하는 것이다. 당연히 알지로 상징되는 김씨집단을 수용한 석씨 집단의 존재나 석탈해를 사위로 맞아들였다는 박씨집단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면 혁거세로 대표되는 박씨집단을 받아들인 선주 육촌의 존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사로국 건국기 육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곧 육촌이 사로국의 모체가 된 것은 아니며, 후대 신라가 세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축차적으로 육부를 형성해 되고 이를 역급하여 육촌을 위작하였다는 것이다.¹⁴⁾ 구체적으로 啄·彼·岐의 세 部가 존재하였는데 부 간의 세력 차가

13) 李丙燾, 앞의 책, 1976, 598쪽.

발생하며 유력부가 분열, 啄部는 啄과 沙啄 및 牟啄(牟梁·漸梁)으로 彼는 本彼와 斯彼로 岐는 漢岐로 부명이 바뀌며 마립간시대 육부가 분화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표적이다.¹⁵⁾ 이러한 견해가 과거 사실에 적중한 것이라면 육촌장의 역할이 강조된 건국담은 허구이며 육촌은 눌지왕대 이후 가공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물론 국내 학자들은 육촌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나타내어 육부의 전신으로 육촌을 인정하는 의견이 많다.¹⁶⁾ 주요 견해만 제시해 보면 이병도는 씨족사회의 육촌이 변천하여 행정구획상 육부가 된 것이라 하였으며,¹⁷⁾ 정중환도 육촌은 전적으로 육부와 동일한 사회체제를 지니지 않았고 육부에 先行하는 씨족집단으로 이해하였다.¹⁸⁾ 특히 육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견해는 고고학계에서 보다 강력히 대두하였는데, 김원룡은 경주의 고분 분포상태를 바탕으로 육촌의 위치비정을 시도하였다.¹⁹⁾ 이외에도 많은 학

-
- 14) 津田左右吉, 「三國史記の新羅本紀について」 『古事記及び日本書紀の研究』, 1924 ; 末松保和, 「新羅建國考(1932)」 및 「新羅六部考(1936)」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 村上四男, 「新羅王都考略」 『朝鮮學報』 24, 1962, 46쪽 ; 三品彰英, 「骨品制社會」 『古代史講座』 7, 學生社, 1963 ; 武田幸男, 「新羅六부와 그 展開」 『碧史李佑成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 -』, 1990 ; 全德在, 「上古期 新羅六部の 性格에 대한 考察」 『新羅文化』 12, 1995 ; 『新羅六部體制研究』, 一潮閣, 1998.
- 15) 朱甫噉, 「三國時代의 貴族과 身分制 - 新羅를 중심으로」 『韓國社會發展史論』, 一潮閣, 1992, 9~19쪽.
- 16) 李丙燾, 「新羅의 起源問題」, 앞의 책, 1976 ; 丁仲煥, 「斯盧六村에 對하여」 『釜山 文理大學報』 3, 1960 ; 丁仲煥, 앞의 논문, 1962 ; 李鍾恒, 「新羅六部考」 『國民大學論文集』 1, 1969 ; 金元龍, 「斯盧六村과 慶州古墳」 『歷史學報』 70, 1976 ; 李宇泰, 「新羅의 村과 村主」 『韓國史論』 7,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1981 ; 金在弘, 「新羅 中古期の 村制와 地方社會 構造」 『韓國史研究』 72, 1991 ; 김재홍, 「신라[사로국]의 형성과 발전」 『역사와 현실』 21, 1996 ; 姜仁求, 「斯盧六村과 國家의 成立段階 試考」 『考古學으로 본 韓國古代史』, 學研文化社, 1997.
- 17) 李丙燾, 앞의 책, 1976, 600쪽.
- 18) 丁仲煥, 위의 논문, 1960, 9~10쪽 ; 위의 논문, 1962, 424~425쪽.

자들이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와 문헌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경주 일대를 중심으로 육촌과 육부의 위치비정을 시도한다.²⁰⁾ 더불어 육촌은 당시 ‘伐’·‘火’ 등으로 불리며 토착세력으로 성장하였고, 후대 육촌이란 명칭으로 기록되었다고 한다.²¹⁾

분화 내지 축차 성립설은 신라 중고기 금석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육부가 중고기 초반인 지증~법흥왕대에 이르러서야 모두 확인된다는 시각에서 비롯된다. 특히 「영일냉수리신라비」와 「울진봉평신라비」를 보면, 같은 김씨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소속부는 양부인데 매금왕 소속부는 사랑부로 차이가 있어 분화설의 근거로 활용된다. 지증왕 4년(503년) 건립된 「영일냉수리신라비」에는 탁부·사탁부·본피부·사피(습비)부 등 4부의 간지 소유자가 확인된다. 법흥왕 11년(524년) 건립된 「울진봉평신라비」에 탁부·사탁부·본피부·잠탁부 등의 4부명을 관칭한 관등 소지자가 나온다. 또한 본 비에서는 ‘신라육부’의 표기가 확인되어, 중고기 초 육부가 존재했음은 분명하다.

더불어 두 비문 모두 양부와 사랑부가 다른 부를 압도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외 본피부가 여타 부에 비해 근소한 우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며, 나머지 3부는 존재감이 희미하다. 이러한 양상은 「포항중성리신라비」에도 크게 다를 바 없으며, 시기적으로 후대 건립된 「단양적성비」·「진흥왕순수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양부와 사랑부 출신자가 대부분이다. 이를 보면 중고기 초의 금석문들은 김씨 왕실이 육부를 초월하는 왕권을 지향했고 이를 이룩해 나갔음을 반증한다. 곧 중고기 초 김씨왕실이 소속

19) 金元龍, 「斯盧六村과 慶州古墳」, 『歷史學報』 70, 1976.

20) 기존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慶州의 地形과 考古 資料의 分布를 통해 六村의 위치 비정을 시도한 강인구의 글 참고(姜仁求, 앞의 논문, 1997).

21) 李宇泰, 앞의 논문, 1981, 71쪽 ; 金在弘, 「新羅 中古期の 村制와 地方社會 構造」, 『韓國史研究』 72, 1991, 3~9쪽.

된 양부와 사랑부가 가장 우세하였으며 나머지 부는 중앙집권화를 추구하는 김씨왕실에 의해 독자성을 상실해 나갔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진흥왕은 국사편찬을 통해 자국 역사를 왕실차원에서 정리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신라 건국신화나 왕위를 교립한 삼성 집단의 시조 탄생담은 이 시기 일차적인 정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건국기 육촌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장이 과거 사실에 적중한 것이라면, 당시 김씨왕실이 후대 편입되었거나 세력이 극도로 미약해진 급량부 등을 존중하여 건국신화에 육촌(부)을 동등한 위상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중을 두면서까지 삽입시킬만한 어떤 당위성을 찾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건국시조는 중고기 왕권을 독점한 김씨왕족의 시조가 아닌 박씨 집단의 시조인 혁거세이기도 했다.

한편 『삼국유사』의 찬자는 육촌의 유래와 영역에 대해 설명한 후 육부의 시조들이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고 언급했다. 곧 육촌의 시조들도 모두 하늘에서 산으로 내려온 천강자의 신성함을 소유한 것이다. 이는 왕위를 교립한 삼성집단의 시조가 지닌 종교적 권위와 다를 바 없다. 혁거세는 자신이 天降者임을 내세워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장했다. 석씨왕족의 시조인 탈해나 김씨왕족의 시조인 알지도 모두 동일했다. 이와 같이 연맹왕국기 박·석·김 삼성 집단은 자신들의 천강시조가 지닌 종교적 권위를 내세우며 그 후예로써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고 경쟁했던 것이다. 곧 상고기부터 중고기 초에 이르기까지 천강시조 숭배로 상징되는 천신신앙이 신라의 지배이념으로 작동하고 있었다.²²⁾

그러므로 만일 김씨왕족이 중고기 육부 중 열세하거나 축차적으로 편입된 부의 시조들에게 자신의 시조와 동일한 천신신앙의 종교적 권위를

22) 金炳坤, 「新羅 初期王權의 成長과 天神信仰」 『韓國思想史學』 13, 1999, 12~36쪽 ; 金炳坤, 「新羅 骨品制度 成立期の 思想的 基盤」 『新羅文化』 22, 2003, 189~206쪽.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 원시종교학에서 보면 이집트와 같은 고대제국이 성립할 때, 지방에 산재하던 신들을 왕조수립과 함께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을 중심으로 결집, 전국적 주신으로 숭배하였다.²³⁾ 곧 고대국가 체제로의 성립에는 종교 관념의 일원화가 요구되었고, 그 결과 가장 상위의 신을 중심을 하는 사상의 통합화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당시 천신신앙이 지닌 종교적 권위의 위상을 감안하면 육촌 시조가 모두 천강자로 설정되어 있음은 일부 논자의 주장처럼 중고기에 성립한 육부를 역급해 육촌이 구성되었다거나 육부가 분화하여 축차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가 된다. 오히려 중고기 범흥왕이 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교를 수용하려 노력했고, 진흥왕의 전륜성왕 표방이나 진평왕의 진종설 주장 등의 모든 행위는 과거 왕위를 교립했던 박씨·석씨 집단은 물론 동일한 천신신앙의 권위를 지닌 육부와의 종교적 사상적 차별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만일 마립간기나 중고기 초에 육촌이 분화 내지 축차적으로 성립되었다면, 이들에게 각각의 천강 시조가 존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역설적으로 별도의 천강 시조가 육촌에 존재하였다면 이는 육촌이 건국기부터 존재해 왔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고구려나 백제의 건국담과 달리 신라의 건국과정에서 시조 혁거세의 위상이나 역할은 수동적인데, 이는 혁거세를 추대하여 사료국 건국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육촌장의 행적이 사실이었을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면 이러한 육촌의 사회적 양상이 어떠한지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자.

23) 張秉吉, 『宗敎學概論』, 博英社, 1975, 214쪽.

Ⅲ. 육촌의 위치와 사회발전단계

1. 육촌의 위치비정

사로국의 건국에 육촌장의 역할이 주도적이었음은 육촌에 대해 자세한 서술을 하고 있는 『삼국유사』는 물론 내용이 소략한 『삼국사기』도 동일하다. 육촌을 기반으로 사로국이 건국되었으므로, 육촌이 사로국 건립의 기층집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육촌의 사회상을 고찰하기에 앞서 육촌의 위치문제를 논해야 한다. 왜냐하면 육촌의 위치는 경북 일대에 산재한다는 견해²⁴⁾와 경주시와 월성군 내지 경주평야에 위치한다는 견해²⁵⁾로 구분되는데 위치비정의 차이만큼 사회발전 양상에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의 입장에서 김철준은 육촌 가운데 박·석·김 부족의 3촌은 경주 토착족으로 그리고 나머지 3촌은 경주 이외 지역에 있던 것으로 파

24) 末松保和, 1954, 앞의 논문; 金哲垞, 1972, 앞의 논문;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上)」 『韓國學報』 2, 1976, 23~24쪽; 文暲鉉, 『新羅史研究』, 慶北大出版部, 1983; 宣石悅, 『“三國史記” 新羅本紀 初期記錄 問題와 新羅國家의 成立』,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6, 94~95쪽.

25) 今西龍, 앞의 책, 1933, 5쪽; 三品彰英, 『三國遺事考證(上)』, 塙書房, 1975, 416~453쪽; 李丙燾, 앞의 책, 1976, 601~604쪽; 李鍾旭, 『新羅國家形成史研究』, 一潮閣, 1982, 22~24쪽; 李基東,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194쪽; 李賢惠,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一潮閣, 1984, 109~110쪽; 金貞培, 『韓國古代의 國家起源과 形成』, 高麗大出版部, 1986, 327~338쪽; 崔在錫, 「新羅의 六村·六部」 『東洋學』 16, 高麗大, 1986, 9쪽; 吳英勳, 「新羅王京에 대한 考察」 『慶州史學』 12, 1987, 1~39쪽; 權五榮, 「新羅六村의 위치문제와 首長의 성격」 『新羅文化』 14, 1997, 2~3쪽; 李炯佑, 『신라초기국가성장사연구』, 영남대출판부, 2000, 50~51쪽; 李仁哲, 「新羅 6村의 형성과 발전」 『震檀學報』 93, 2002, 6~10쪽; 朴洪國 외, 「斯盧 6村의 위치에 대한 試論」 『新羅文化』 21, 2003, 129~130쪽.

악하고, 이들은 부족사회의 틀을 바탕으로 완만한 부족연맹체사회를 구성한 것으로 이해했다.²⁶⁾ 문경현도 사로 육촌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나오는 진한 십이국 가운데 여섯 국으로 진한의 영역에 걸친 육국이라 하였다.²⁷⁾ 이는 김철준이 육촌을 가야연맹의 육가야와 비교되는 상호 원거리에 존재하는 부족국가로 파악한 것²⁸⁾과 비슷한 입장이다.

그러나 경북 일대의 원거리에 산재한 부족들이 경주에 집중적으로 모여 사로국을 형성하였다거나 진한 12국 중 6국이 연맹해 사로국 정도의 정치체를 형성했다고 보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김철준이 제시한 각 촌의 二元 組織은 촌명 분석에서 비롯되나, Dual Organization 체제에 입각한 이론 및 원거리에 위치하는 두 부족의 연맹을 선뜻 수긍하기 쉽지 않다. 문경현의 주장을 보면 육촌을 『三國志』에서 언급한 십이국 중에 육국이라고 보고 있으나 역시 납득키 어렵다. 만일 경북 일대 6국이 연맹해 사로국을 이루었다면, 이른 시기부터 마한왕이나 목지국왕과 같이 주목받는 정치체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후대 관점이지만 骨品制度가 王京之民을 대상으로 했음은 육촌의 지역적 범위가 경주 일대임을 방증한다. 주지하다시피 골품제도는 신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통합된 집단의 일부 지배층을 신라의 지배체제 안에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며 통합민에 대한 차별적 특권을 드러내기 위해 형성되었다.²⁹⁾ 그리하여 사로국인들은 6세기 초 경주의 왕경지민을 대상으로 하는 골품제도를 법제화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신분제 사회를 구축하였다.³⁰⁾ 이는 자연히 신라 발전과정에서 통합된 非

26) 金哲垞, 『韓國古代社會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90, 130~142쪽.

27) 文暻鉉, 앞의 책, 1983, 76쪽.

28) 金哲垞, 앞의 책, 1990, 33~34쪽.

29) 李基白·李基東, 앞의 책, 1982, 217~223쪽; 朱甫噉, 앞의 논문, 1992, 3~9쪽.

30) 申東河, 「新羅 骨品制의 形成過程」, 『韓國史論』 5, 1979, 31~57쪽; 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 I (古代篇)』, 一潮閣, 1982, 211~212쪽; 李鍾旭, 「新羅骨品

王京之民(진한의 나머지 諸小國 民)을 구별하는 법적장치로 활용되었다. 본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활용된 관등제가 京位와 外位の 이원적 구조를 지녔고, 이는 비왕경지민을 차별하는 신라 지배 집단이 지닌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러한 골품제도의 연원은 경주 일대에 근거지를 둔 斯盧國의 대외 팽창과 더불어 구체화되었다. 또한 골품제도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신라인들은 왕경민만의 특권을 합리화할 사상적 기반이 필요했다. 이에 중고기 왕경 지역에 대한 공간적인 신성화를 이룩하고자 왕경 오악을 설정하기도 했다.³¹⁾ 육촌이 경북 일대에 산재했던 부족이나 진한 12국 중 6국의 연맹체였다면 경주 일대의 왕경민에게만 적용되는 골품제도의 성립과 중고기 경주를 둘러싼 오악의 설정 등은 불가했을 것이다.

2. 지식묘사회와 육촌

1980년대 서구 인류학계의 연구 방법론이 한국 고대사 연구에 활발히 적용된 바 있다. 이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초기 상황에 대한 사료 부족과 이로 파생된 국가 형성 과정에 대한 모호함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편으로 여겨졌다. 특히 사로국의 성립과정에서 기층 역할을 한 육촌을 서구 인류학자 Elman R. Service가 제시한 Chiefdom과 같은 準國家發展段階에 비정하고, BC 7~BC 2세기 형성되었던 경주 일대의 지식묘사회를 이와 연결시킨 견해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hiefdom은 ranked

제의 起源, 『東方學志』 30, 1982, 164~166쪽; 李鍾旭, 「新羅骨品制研究의 動向」 『韓國古代的 國家와 社會』, 一潮閣, 1985, 214쪽; 申滢植, 『新羅史』,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160~163쪽; 宣石悅, 「新羅 骨品制의 成立基盤과 그 構造」 麻立干時期的 支配體制 整備와 관련하여, 『釜大史學』 11, 1987, 4~21쪽.
31) 김병곤, 「신라의 왕경 오악과 (소)금강산」 『新羅文化』 43, 2014, 390~391쪽.

society, 곧 정치적 계층분화가 이루어진 사회로서 이전의 부족국가를 대신하는 주장사회이며 육촌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이는 육촌장들이 지식묘사회를 바탕으로 각기 하나씩의 촌과 그 안에 있던 씨족집단을 지배하는 정치조직을 소유하였다고 파악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사회는 사로국으로 발전하며 일종의 小國 段階(도시국가 또는 Asiatic state)로 등장한다고 하였다.³²⁾

경주 일대에는 BC 3세기경까지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지식묘군들이 확인된다. 현재 경주 북쪽 방면에 150여 기의 기계면 지식묘군을 중심으로 신광면·강동면·산북면 등 넓은 지역에 지식묘가 분포되어 있다. 동방동·구정동·내남면 광석리·탑동·서면·율동·광석동 일대 서쪽 방면에도 소수의 지식묘가 있다. 곧 경주 일대와 인접 영일군에까지 군집 조영은 부분적이지만 지식묘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묘사회는 후대 묘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여 연구성과가 미진할 뿐, 본래 이 일대에 조성되었던 지식묘사회의 역사적 의미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형우는 진한의 읍집벌국·이서국·압독국·골벌국 등 여러 ‘國’들의 형성기반은 바로 경북 일대에서 취락을 형성하고 있던 지식묘축조 집단이었으며,³³⁾ 사로·사라로 불리는 정치집단의 선주 토착세력인 육촌의 근거지도 경주시 일대 지식묘축조 집단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³⁴⁾

고고학계에서는 80년대부터 지식묘의 사회 발전 단계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되었다. 논란의 핵심은 지식묘사회가 소위 엘리트 서비스가 제시한

32) 李鍾旭, 앞의 책, 1982, 12~54쪽.

33) 李炯佑, 『新羅初期國家成長史 研究』, 영남대학교출판부, 1999, 70~172쪽.

34) 이형우, 「진·변한 諸國의 位置와 存在樣態」 『진·변한사연구』,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2, 78쪽 ; 李炯佑, 「사로국의 발전과 국읍의 변모」 『國邑에서 都城으로 - 新羅王京을 중심으로 - 』,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26, 2005, 44~45쪽.

준국가단계인 Chiefdom에 비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었다. 지식묘사회는 마제석검·마제석촉과 토기제작에서 보이는 전문기술 그리고 드문 경우이 나 동검·동촉의 청동 제품 등에서 전문 공인층(Full-time specialist)의 등장을 알 수 있고 농경을 바탕으로 하는 잉여생산과 지역 간 교역이 보이는 사회라는 것이다. 특히 거대한 개석 운반과 지식묘를 조성하는데 드는 노동력의 규모를 산출하여 대형의 지식묘를 조성한 사회일 경우, 약 5000여명 내외의 인구를 갖춘 정치체로 파악한다. 또한 이러한 대형 지식묘가 군집 조영되어 있는 것은 막대한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족장이나 군장이라는 세습 권력자가 존재하는 지배·피지배의 계급사회라는 것이다.³⁵⁾

반면 지식묘사회를 계층 분화가 미약한 사회로 보는 견해가 있다. 지식묘의 축조나 배치는 장례의식이자 신앙과 종교의 뜻에 우선하여 조성되었으며 강이나 산록의 흐름과 평행하게 조성된 특색은 ‘자연숭배사상’과 결부되는 것이고, 원형이나 직렬로 군집된 지식묘는 그 사회가 혈연으로 연결된 사회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식묘는 공동체적 협동체제 아래 축조된 것이라 한다. 더욱이 지식묘사회를 준국가단계의 계급사회로 보기에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며 지식묘에서 발견된 부장품이 극히 적고, 30여명의 노동력으로 조성이 가능한 소형 지식묘가 절대 다수인데다 지배자의

35) 지식묘사회를 준국가사회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들과 이에 기반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崔夢龍, 「全南地方 支石墓社會와 階級の 發生」 『韓國史研究』 35, 1981, 7쪽 ; 崔夢龍, 「全南先史考古學의 再照明」 『龍鳳』 12, 전남대, 1981, 50~58쪽 ; 최정필, 「新進化論과 韓國 上古史 解說의 批判에 對한 再檢討」 『韓國古代國家形成論 - 考古學으로 본 國家』, 崔夢龍·崔盛洛 편저,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李榮文, 「全南地方 支石墓 社會의 領域圈과 構造에 對한 檢討」 『先史와 古代』 5, 1993 ; 李鍾旭, 앞의 책, 1982, 77~90쪽 ; 江原大博物館, 『양구 고인돌』, 1992, 33쪽 ; 全南大博物館, 『昇州 大峙里 支石墓群』, 1991, 47쪽 ; 전남대학교박물관, 『同福담 水沒地區 支石墓 發掘調査報告書』, 1982, 56~58쪽 ; 國立光州博物館, 『康津 永福里 支石墓 發掘調査報告書』, 1983, 62쪽.

무덤으로 보기에 너무 많은 지석묘의 수량 등을 감안할 때, 오히려 원시 공동체사회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³⁶⁾

이러한 논쟁이 정리되지 않은 한 지석묘사회의 역사적 실체를 구체화 하기란 쉽지 않다. 사실 지석묘의 구조나 규모는 물론 군집도 등의 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다. 다만 모든 지석묘사회가 전형적인 계급사회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창원 덕천리 지석묘와 같은 대형의 지석묘를 축조한 집단의 경우, 군집크기 그리고 부장품에 차별성이 있어 일부 지석묘사회는 최종적으로 준국가단계라고 평가될 만한 계급사회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다만 경주 일대의 지석묘 군집이 미약하여 충분히 조사되지 못한 까닭에 조영집단의 출자나 문화적 연원 등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지석묘축조 집단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후대 다른 묘제를 채용한 집단보다 열세임을 시사한다. 후술하겠지만 연의 동방경략 이후 장기간에 걸쳐 선진 청동기문화 역량을 가진 고조선계 유민이 누차 경주 일대에 정착하며 기존 지석묘사회에 문화 충격을 주었다. 아마도 기원전 3세기 경주 일대 지역에 목관묘 축조가 나타나고 이후 주요 묘제로 자리 잡는데, 이는

36) 김재원·윤무명, 『韓國支石墓研究』, 국립박물관, 1967 ; 金貞培, 「君長社會發展段階試論」 『百濟文化』 12, 1979 ; 이응조, 『한국의 선사문화』, 평민사, 1981 ; 金秉模, 「韓國 巨石文化의 源流에 관한 研究(I)」 『韓國考古學報』 10·11合, 1981 ; 池健吉, 「支石墓社會의 復原에 관한 一考察」 『梨花史學研究』 13·14合, 1983 ; 李南奭, 「靑銅器時代 韓半島 社會發展段階 問題」 『百濟文化』 16, 1985 ; 孫秉憲, 「韓國先史時代의 무덤」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1987 ; 최종규, 「무덤에서 본 三韓社會의 構造 및 特徵」 『韓國古代史論叢』 2, 1991, 144~145쪽 ; 강봉원, 『The role of warfare in the formation of the state in Korea :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approaches』, 박사학위논문, University of Oregon, 1995, 101~113쪽 ; 「한국 지석묘 연구의 이론과 방법론」 『한국 지석묘(고인돌) 유적 종합조사·연구(I) - 분포, 형식, 기원, 전파 및 사회복원 -』, 문화재청, 서울대학교박물관, 1999.

고조선계 유민의 유입과 연계될 수 있다. 현재 경주의 지식묘사회와 목관묘축조 집단의 연계성은 분명하지 않다. 대체로 조영범위가 중복되지 않아 일정기간 공존했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육촌은 토착의 지식묘사회보다 이러한 청동기문화를 가진 고조선 유민의 등장으로 본격화되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본다. 특히 건국 신화에 ‘조선 유민이 육촌을 이루었다.’라고 기록되었음은 육촌 형성에 고조선 유민이 주도권을 확보하였던 결과일 것이다. 더불어 경주 일대 정착한 육촌을 모두 동등한 세력을 지닌 집단으로 획일화할 수도 없다. 사로국 건국에 알천양산촌이나 돌산고허촌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이 우세 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각 촌의 정착시기의 선후와 정착 당시의 세력 차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IV. 육촌의 출자와 촌장

1. 육촌과 고조선 유민

육촌민들의 족적 유래와 이들의 사회성격을 살펴보자. 혁거세신화를 통해 볼 때, 육촌과 관련해 세 가지 분명한 사안을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 육촌 출자가 조선 유민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이설이 존재했지만 신라인들에 의해 최종적인 건국 기년으로 설정된 해가 BC 57년으로 이는 고조선 멸망 이후 최초의 갑자년이라는 것이다.³⁷⁾ 이는 신라인들의 기억과 전승에 기층집단인 육촌이 고조선과 연관됨을 분명히 숙지하고 있었던 결과이다. 세 번째, 육촌집단이 건국시조인 박혁거세보다 먼저 경

37) 김병곤, 「斯盧國의 출범과 신라인의 건국관」 『신라사학보』 23, 2011, 61~62쪽.

주 일대에 정착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육촌민들의 유래와 사회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조선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단 고조선 사회를 연의 동방경락을 분기점으로 전기와 후기 고조선, 그리고 위만이 왕위를 찬탈한 이후 멸망할 시기까지를 위만조선기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박씨집단의 경주유입 시기와 그 문화를 파악함으로써, 그보다 先住한 육촌이 고조선의 어떤 시기와 연결되는지 알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육촌의 사회적 양상을 추적할 단서를 확보해보자.

그럼 고고학계에서는 박혁거세의 경주유입 시기를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자. 우선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위만조선기에는 漢 철기문화의 영향을 받아 BC 2세기 중엽 경부터 철장도·철장검·철단검 등 철제 무기류와 화분형 토기 및 타날된 단경호 등이 동반되는 토광목관묘가 조성된다고 한다.³⁸⁾ 그리고 이와 같은 서북 지방의 청동기·철기문화는 경주의 이른 시기 토광목관묘에서 출토되는 청동기 및 철기문화와 강한 계승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³⁹⁾ 곧 BC 2세기말~BC 1세기 초로 편년되는 경주 일대의 토광목관묘인 入室里와 九政里遺蹟에서 위만조선기의 철제 이기와 화분형 토기로 보이는 토기가 동반 출토되고, 이것이 신라 건국과 연결된다는 것이다.⁴⁰⁾

38) 리순진, 「우리나라 서북지방의 나무곽무덤에 대한 연구」 『고고민속논집』 8, 1983, 99~158쪽;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1986, 117쪽; 朴淳發, 「우리나라 初期鐵器文化의 展開過程에 대한 약간의 考察」 『考古美術史論』 4, 충북대, 1994, 59쪽.

39) 李賢惠, 앞의 책, 1984; 李鍾宣, 「細形銅劍文化의 地域的 特性」 『韓國上古史學報』 3, 1990.

40) 金元龍, 「慶州九政里出土金石竝用期遺物에 對하여」 『歷史學報』 1, 1952: 앞의 책, 1987, 543~545쪽; 李清圭, 「細形銅劍의 形式分類 및 그 變遷에 對하여」 『韓國考古學報』 13, 1982; 崔鍾圭, 「慶州 九政洞一帶 發掘調査」 『博物館新聞』 139, 1983; 崔秉鉉,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1992, 91~100쪽.

이와 같이 BC 2세기말~BC 1세기 초에 유입된 위만조선의 영향을 받은 청동기·철기문화를 박씨 집단의 경주 유입으로 볼 때, 신화 상에서 알 수 있듯이 육촌민의 경주 유입은 이보다 이전이 된다. 그러면 과연 언제부터 육촌 집단은 고조선 지역으로부터 南遷하였고, 경주 일대에 정착하였을 것인가? 그것은 BC 4세기말~BC 3세기 초 燕將 秦開의 동방정략기부터 BC 2세기 초 준왕 남하 전후기까지의 사이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현존 기록에 연의 동방정략기부터 고조선 유민이 한반도 동남부 내지 경주 일대로 이동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연의 동방정략 이후 고조선 유민으로 보이는 초기세형동검 집단이 대동강 하구를 비롯해 한강 유역(水石里遺蹟)·충남의 서해안(보령 校城里遺蹟) 지역에 상륙한 것으로 본다.⁴¹⁾ 동시에 이 유적들보다 후대 유적으로 한반도 남부의 錦江 流域에서 확인되는 BC 3세기대의 괴정동 유형의 세형동검유적도 파급의 시작은 고조선 유민의 남하에 따른 것으로 본다. 결국 연의 동방정략에 의해 약 2천여 리의 요동 일대를 상실한 고조선에서 이후 적지 않은 유민들이 한반도 남부로 이동하였던 것이다.

한편 대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후기 고조선은 준왕대에 이르러서 주조철부로 대표되는 전국계 내지 진한 교체기의 철기문화를 수용한다. 이때의 서북한 지역에서는 주조철부와 함께 보다 발전한 형태의 세형동검을 동반하는 정봉리·송산리 석곽묘와 반천리·석산리 등의 토광묘가 조성되었다. 이후 BC 2세기초 위만에 의해 축출당한 준왕 일파는 한반도 남부로 이동하여 자립해 韓王이 되었다.⁴²⁾ 그리고 고고학계에서는 주조철부 및

41) 朴淳發, 앞의 논문, 1994, 51쪽.

42) 『三國志』卷30, 魏書30, 東夷傳30, 韓傳. “準與滿戰 不敵也 將其左右宮人走入海 居韓地 自號韓王 『魏略』曰 其子及親留在國者 因冒姓韓氏 準王海中 不與朝鮮相往來 其後絕滅 今韓人猶有奉其祭祀者” ; 『後漢書』卷85, 東夷列傳 5, 韓條. “初朝鮮王準爲衛滿所破 乃將其餘衆數千人走入海 攻馬韓破之 自立爲韓王 準後滅絕”

보다 발전된 세형동검 등을 부장한 전북지역의 長水 南陽里와⁴³⁾ 익산 평장리, 完州 葛洞,⁴⁴⁾ 충남지역의 扶餘 合松里,⁴⁵⁾ 唐津 素素里遺蹟⁴⁶⁾ 등을 준왕 남천으로 형성된 BC 2세기 전반기 유적으로 본다. 역시 준왕 남천의 전후 시기에도 상당한 수의 고조선 유민이 한반도 남부로 유입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사료국 건국기 경주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고고학계의 연구 성과는 대부분 박씨 집단의 출현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청동기·철기문화를 가진 입실리 유적 등이 소국 단계 유력자의 존재를 인정케 하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사료국의 등장과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육촌은 주목받지 못하였는데, 상술한 바와 같이 그것은 육촌에 대한 불신과 박씨집단보다 선주했다는 육촌과 직결될 만한 청동기문화의 존재가 경주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경주를 둘러싼 영남지역에 이 시기보다 앞선 청동기문화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영남의 청동기문화에 대한 이청규의 견해에 따르면, BC 3세기 이전의 비파형동검시기로부터 세형동검으로의 이행 시기 사이에 청동무기를 중심으로 2~3종의 청동기가 보급되는 것이 확인된다고 한다.⁴⁷⁾ 곧 淸道郡 禮田洞⁴⁸⁾에서 출토된 전형적인 비파형동검은 요녕 지역의 십이대영자 혹은 강상 유형에 대응될 수 있고, 이외에도 비파형동검과 더불어 마제석검, 유경식 석촉 등이 출토된 昌原 鎭東里,⁴⁹⁾ 홍도와

43) 池健吉, 「長水南陽里出土青銅器·鐵器一括遺物」 『考古學誌』 2, 1990.

44) 湖南文化財研究院, 『完州 葛洞遺蹟』, 2005.

45) 李健茂, 「扶餘合松里遺蹟出土一括遺物」 『考古學誌』 2, 1990.

46) 李健茂, 「唐津素素里遺蹟出土一括遺物」 『考古學誌』 3, 1991.

47) 李清圭, 「嶺南地方 青銅器文化의 전개」 『嶺南考古學』 21, 1997, 76~77쪽.

48) 金鍾徹, 「慶尙北道淸道郡禮田洞의 出土遼寧式銅劍」 『岡崎敬先生退官記念論叢 東아시아의 考古と歴史(上)』, 1987.

49) 沈奉謹, 「慶南地方 青銅遺物의 新例」 『釜山史學』 4, 1980.

銅鏃 등이 동반 출토된 金泉 松竹里⁵⁰⁾와 金海 茂溪里유적⁵¹⁾ 그리고 尙州 洛東面 출토의 劍鞘附屬具와 동검, 영덕 사천동 출토 동검 등을 통해 BC 3세기 이전의 영남지방 청동기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雙頭鈴·竿頭鈴·八珠鈴 등이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傳尙州 출토 청동기⁵²⁾와 銅劍·銅鉞가 다량 출토된 金海 會峴里 甕棺墓,⁵³⁾ 세형동검·변형점토대 深鉢形土器·흑색마연토기장경호가 출토된 慶山 林堂洞遺蹟⁵⁴⁾ 등에서 보다 발전된 청동기가 출토되며 이 유적들은 대체로 BC 3세기 ~ BC 2세기 경으로 비정된다.⁵⁵⁾

경주 일대의 경우는 小倉 수집품으로 현재 東京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전경주 출토 견갑형 동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⁶⁾ 이견무에 따르면 견갑형 동기가 형태나 문양을 볼 때, 유사한 동기가 정가와자 6512호 묘에서 출토되어 있으며, 방패형 동기·검과형 동기·원개형 동기·조문경 등이 조합을 이루는 괴정동 유형과 동일 시기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⁵⁷⁾ 그러므로 이 견갑형 동기가 실제로 경주에서 출토된 것이라면, 연의 동방 경략 이후 일단의 고조선사회 유력자가 경주 일대까지 남하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그 외 초기 세형동검이 출토된 경주 동방리유적에서는 마제석검이 동반되었으며 편년은 대체로 BC 300년 이전이다.⁵⁸⁾ 경주 배

50) 曹永鉉, 「金陵 松竹里遺蹟 發掘調査」 『第17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 發表要旨』, 1993.

51) 金元龍, 「金海 茂溪里 支石墓 出土品」 『東亞文化』 1, 1963.

52) 藤田亮策 外, 「南朝鮮に於ける漢代の遺蹟」 『大正11年度古蹟調査報告』 2, 1992.

53) 樞本杜人, 「金海貝塚甕棺箱式石棺 - 金海貝塚再檢討(承前)」 『考古學雜誌』 43-1, 1957.

54) 金龍星, 「土器에 의한 大邱·慶山 地域 古代墳墓의 編年」 『韓國考古學報』 35, 1996.

55) 李清圭, 앞의 논문, 1997.

56) 岡内三眞, 「朝鮮の異形有文青銅の器製作技術」 『考古學雜誌』 69-2, 東京: 日本考古學會, 1983.

57) 李健茂, 앞의 논문, 1991, 142~158쪽.

반리유적도 세형동검과 함께 동모 등이 출토되었고 편년은 대략 BC 2세 기대라 한다.⁵⁹⁾ 이외에도 경주 일대 지역의 초기철기문화를 보여준다는 경주 나정과⁶⁰⁾ 문산리유적⁶¹⁾ 등도 6촌 집단의 유입 내지 성립과 연계될 수 있다.⁶²⁾

물론 이상에서 언급된 영남지방 청동기 유적의 연원이 반드시 고조선 사회에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기원전 대규모 유민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고조선이 유일하다. 그러므로 고고학계에서 한반도 남부로의 청동기·철기문화의 흐름은 한반도 서북부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기록상에도 중국의 진한 교체기 및 위만조선 성립과 더불어 중국계 유민과 고조선 유민들이 한반도 남부로 계속하여 이동하였다.⁶³⁾ 더 나아가 현재 경주 일대 토광목관묘와 목곽묘의 조성은 이러한 서북지역 고조선의 문화와 위만조선의 멸망 이후 설치된 한사군의 문화 역량이 누차 유입된 결과이며, 이후 사로국이 진한 연맹의 맹주국으로 성장하는 데 주요 동력이

58) 朝鮮總督府, 『博物館陳列圖鑑』 12, 1943.

59) 藤田亮策 外, 앞의 논문, 1992.

60) 중앙문화재연구원·경주시, 『慶州 蘿井-본문-』, 2008, 446쪽.

61) 聖林文化財研究院, 『慶州汶山里青銅器時代 遺蹟-Ⅲ·Ⅳ구역-』, 2012.

62) 최근까지 조사된 사로국 성립 전후기 영남 지방과 경주 일대의 목관묘 유적을 소개한 김용성의 글이 참고될 수 있다(김용성, 「영남지방 목관묘와 사로국」 『韓國古代史研究』 82, 2016, 7~44쪽.

63) 『三國志』卷30, 魏書30, 東夷傳 30, 韓傳. “魏略曰 初 右渠未破時 朝鮮相歷谿卿以諫右渠不用 東之辰國 時民隨出居者二千餘戶” “桓靈之末 韓濊疆郡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三國志』卷30, 魏書30, 東夷傳30, 辰韓傳. “其耆老傳世 自言古之亡人 避秦役 來適韓國 馬韓割其東界地與之” “相呼皆爲徒 有似秦人 非但燕齊之名物也 名樂浪人爲阿殘 東方人名我爲阿 謂樂浪人本其殘與人 今有名之爲秦韓者 始有六國 稍分爲十二國”; 『晉書』卷97, 列傳67, 辰韓條. “自言秦之亡人避役入韓 韓割東界以居之立城柵 言語有類秦人 由是或謂之爲秦韓”; 『梁書』卷54, 列傳48, 新羅條. “新羅者 其先本辰韓種也 辰韓亦曰秦韓 相去萬里 傳言秦世亡人避役 來適馬韓 馬韓亦割其東界居之 以秦人 故名之曰秦韓”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육촌은 연의 동방경략부터 준왕의 남천 사이에 流亡한 세력으로 『三國史記』의 기사처럼 박혁거세 집단보다 먼저 경주 일대에 정착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전기 고조선의 비파형 동검기와 초기 세형 동검기의 문화로부터 주조철부로 대표되는 진한 교체기의 철기문화를 경험했다. 그리고 이 시기 고조선사회의 유력자가 지닌 지배력의 성격은 초기 세형동검 단계의 경우 전형적인 사제=왕의 모습을 가졌으며, 철기문화 수용의 단계에서는 사제=왕적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채 정치적 군장의 모습을 지향하던 상태에 있었다.⁶⁴⁾ 그러므로 이 시기 사이에 남하한 육촌 집단이나 촌장의 정치적 성격은 남하시기나 집단 규모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이와 비슷한 여건을 지녔다고 여겨진다.⁶⁵⁾

2. 육촌장과 촌장회의

六村은 유리니사금 9년 六部로 개명되었다. 유리왕 9년조 기사는 무엇인가 주목할 만한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여 부명의 개칭 기사가 실렸지만, 그 기년을 전적으로 신빙할 수 없다. 『삼국사기』의 혁거세 즉위년 기사 이후 육촌의 명칭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아 육부 개명 이전부터 부명이 사용된다. 그럼에도 『삼국사기』에 육부의 전신으로 육촌이 기록되었음은 후대 사가들의 눈에 촌이 부와 구별될 만한 사회환경을 지녔으므로 촌이라는 일반 명사를 사용해 기록했던 것이다.

이러한 육촌의 사회상을 추적할 만한 기사는 매우 제한적이다. 우선 육촌집단은 혁거세 등장 이전의 토착세력이며 경주 일대를 중심으로 山谷

64) 金炳坤, 「古朝鮮 王權의 成長과 支配力の 性格 變化」 『東國史學』 34, 2000, 38~49쪽.

65) 김병곤, 『신라 왕권 성장사 연구』, 학연문화사, 2003, 135~140쪽.

間으로 표현된 일정 영역을 점유하고 있었음은 살펴본 바 있다. 이외에 육촌의 사회양상을 살펴보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사안이 있다. 첫 번째 각 촌장들이 모두 천강자임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대체로 촌장이 지닌 천강신화는 고대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신화이다. 이러한 신화는 육촌장 모두에 있는데 ‘처음(初 : 옛날)에 始祖가 어떤 산이나 峰에 내려왔다.’는 단순 구조로 되어 있다. 아마도 이러한 구조는 혁거세의 건국신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에 흡수되어 극단적 단순화를 거친 결과로 여겨진다. 어떻든 이 짧은 기록 속에서나마 촌장들이 天降子의 신분을 가진 인물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촌장에 대해 육촌장들이 대대로 정치적 지배자로서 또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능을 수행했다고 한다.⁶⁶⁾ 그러나 촌장신화에는 본격적인 계급 사회에 나타나는 天神族과 地神族의 결합이나 英雄神話의 觀念이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촌장의 천강이 혁거세 신화에 흡수되며 단순화된 결과일 수 있지만, 아직 각 촌이 계급 사회로의 발전이 미약한 사회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암시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를 혁거세 신화의 구조와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혁거세 신화에 보이는 천신족(혁거세)과 지신족(水神族 : 閼英)의 결합은 부족 연합 등과 같은 본격적인 계급 사회에서 나타나는 신화 유형이다. 그러나 촌장의 천강신화는 오직 천신족이 어떤 산에 하강했다는 구조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촌장신화가 혁거세 신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형성된 것이며, 당시 육촌이 미분화의 사회 조직을 가졌고 결국 사로국의 형성보다 先行된 사회임을 보여준다.

그러면 육촌장들은 어떤 필요성에 의해 시조신화를 구성하였을까? 그것은 지배력의 합리화를 위해 단군이나 동명성왕 그리고 주몽 등이 천손

66) 金杜珍, 「新羅建國神話의 神聖族觀念」 『韓國學論叢』 11, 1989, 16~17쪽.

의 후예임을 천명하며 최고 지배자로의 자격을 주장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 촌장들이 천장을 주장한 것은 재래의 천신신앙에 기반한 종교적 권위를 표현한 것이며, 천과 혈연적으로 관련된 시조와 후손들이 각 촌을 다스리는 촌장이 된다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곧 육촌에 있어 하늘이 갖는 무한한 힘과 권위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종교적 신성성이 촌락 지배력의 근원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육촌장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시조들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에서 촌락 지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다. 결국 육촌장이 지닌 지배력의 성격은 한마디로 종교적 권위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들을 제정일치 성격이 짙은 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촌장들이 입방설도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여기에 자제들을 데리고 참석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사로국이 형성되기 직전 하나의 완만한 정치적 협의체라 할 수 있는 촌장회의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는 더불어 육촌장들에게 각각 독자적인 활동영역과 촌락 지배권, 그리고 촌을 대표하는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육촌장들이 촌장회의에 자제를 동석시킨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내용은 육촌의 촌장 세습권을 나타내고 있는 기사로 파악할 수 있어 육촌에 명확한 지배·피지배의 계층 분화가 존재하였다는 견해가 제시될 수 있었다.⁶⁷⁾ 실제 소략한 기록이지만 촌락을 대표하는 이들의 존재와 역할을 간접할 만한 견제세력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경주 일대에는 기원 전후기 세습적인 지배권을 시사하는 고고 자료가 분명하지 않다. 그럼에도 촌장이 지닌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천신신앙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이는 고고 자료로서 분명히 표출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의 추가적인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

아무튼 촌장회의에 자제들이 동석하였다는 것은 육촌이 지닌 사회성

67) 李鍾旭, 앞의 책, 1982, 15~46쪽.

격의 일단을 보여준다. 곧 각 촌은 천강자를 시조로 삼았으며 이 천강자의 직계 후손이 계보상 우위에 선 핵심가계로 존재하였음을 시사한다. 자연히 시조의 직계 후손은 천강자로서의 종교적 권위를 대대로 유지하고 전통적 관습에 따라 촌락 지배권을 유지했을 것이다. 곧 육촌은 공동의 조상신을 모시는 혈연과 혈족 체계에 기반하여 아직은 계층 분화가 미약한 사회로 혈연적·지연적 유대관계를 중요시하는 씨족 사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씨족 원리에 근거한 사회에서의 지배력 세습은 후대 전형적인 왕과 같은 지배자의 왕위세습과 동일시 할 수 없다. 물론 혈연에 의한 지배력의 세습이라는 점은 같으나 양자에 있어서 지배권력의 기반은 엄연히 구분된다.

이상의 내용들을 토대로 육촌장들이 어떤 사회적 위상을 지닌 인물이었는지 생각해 보자. 앞에서 육촌장들은 제정일치적 분위기가 강했던 시기의 고조선사회로부터 남하한 집단의 장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영위했던 문화 내력은 고조선사회의 이형 동기와 청동검으로 대표되는 청동기시대의 司祭=王的인 유력자들과 연결된다. 곧 육촌장은 유민집단으로 천강자로 상징되는 종교적 권위에 기반한 사제적 속성이 더 강한 제정일치적 성격의 장이었다.

그러면 제정일치적 장의 성격을 지닌 촌장들의 직무를 살펴보자. 당연히 그들은 종교적 권위를 기반으로 제사와 주술·치병·예언 등을 행하는 종교직능자로서 巫와 같은 사회적 직무를 수행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현존 문헌기록 중 사료국에서 巫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보자. 『삼국지』 내에서 신라와 연관될 만한 제천기록을 보면, 한조에 단순히 “큰 새의 깃털을 사용하여 죽은 자를 보내는데, 그 의미는 죽은 자로 하여금 새처럼 날아다니라는 뜻이다. …鬼神을 祭祀지내는데 다름이 있으니 모두 문의 서쪽에 竈神을 모신다.”는 기록만이 보인다.⁶⁸⁾ 이를 보면 진한에

68) 『三國志』卷30, 魏書30, 東夷傳30, 辰韓·弁辰傳. “以大鳥羽送死 其意欲使死者飛揚 … 祠祭鬼神有異 施竈皆在戶西”

서의 장례의식은 죽은 자로 하여금 새처럼 날아 천상계로 올라가라는 의미로 여겨진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집에 조신을 모시는 제사가 있었다. 이러한 의례 및 제사에는 당연히 주제자가 있었을 것이지만, 단편적인 문헌 기록을 통해 그들의 정확한 사회적 위상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南解가 왕호로서 사용한 次次雄의 유래가 巫였다는 점은 상기할 만하다. 차차웅에 대한 설명을 보면 “次次雄은 혹 慈充이라고도 하였는데, 김대문이 이르기를 방언으로 巫를 이르는 말로 세상 사람들이 巫가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숭상하였기 때문에 그를 외경하다가 드디어 尊長者를 자칭이라고 하였다.”라 한다.⁶⁹⁾ 현재 학계에서는 혁거세의 적자로서 제2대왕에 오른 남해가 차차웅(자칭)이라는 왕호를 소유하였던 사실에서 신라의 초기 왕권이 제사장이라 할 수 있는 천군 계열에서 발전했다거나 巫的 司祭王으로 신권과 관련된 지배자로 보고 있다.⁷⁰⁾

주지하다시피 남해는 혁거세의 적자로 기록되어 있어 최소한 동일집단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박씨집단은 한의 철기를 경험한 위만 조선기의 유민으로 당시 사회는 제정분리가 이루어졌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제정분리를 경험한 박씨 집단의 리더 혁거세와 그의 후예들은 정치적 균장이었다.⁷¹⁾ 남해의 왕호에 대한 김대문의 설명 또한 남해가 巫 출신임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 김대문의 설명은 당시 巫가 오랫동안 鬼神을 섬기고 祭祀를 숭상하였기 때문에 드디어 존장자의 사회적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으

69)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南解次次雄 元年條. “次次雄 或云慈充 金大問云 方言謂巫也 世人以巫事鬼神尙祭祀 故畏敬之 遂稱尊長者 爲慈充”

70) 李賢惠, 「三韓의 ‘國邑’과 그 成長에 대하여」, 『歷史學報』 69, 1976, 25~26쪽 ; 李鍾旭, 앞의 책, 1982, 72쪽 ; 千寬宇, 앞의 책, 1989, 285~286쪽 ; 羅喜羅, 「新羅初期 王의 性格과 祭祀」, 『韓國史論』 23, 1990, 102쪽 ; 辛鍾遠, 『新羅初期佛敎史研究』, 民族社, 1992, 33쪽 ; 金鍾璿, 「新羅 社會統制의 宗教的·思想的 背景 - 特히 三國時代를 中心으로 - 」, 『아시아문화』 8, 1992, 224~227쪽.

71) 金炳坤, 「新羅 初期 王의 性格 再考」, 『韓國古代史研究』 16, 1999, 321~326쪽.

로 결국 사로지역의 전통적 존장자의 연원이 巫였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경주지역에서 오랫동안 동령 등의 이형 동기를 가지고 巫나 司祭와 같은 ‘事鬼神 尙祭祀’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은 누구인가 생각해보자. 그리고 과연 이러한 종교적 권위를 바탕으로 촌민들로부터 외경받아 촌락을 다스려온 인물은 누구였을까? 그들은 다름 아닌 혁거세의 탄생 신화에 등장하는 육촌장들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육촌장들은 제정일치적 성격이 강한 고조선사회의 유민이자 박씨 집단보다 경주 일대에 선주한 토착집단의 장으로 劍·鏡·玉으로 상징되는 청동기시대의 유력자였다. 더불어 이들은 각기 천강신화를 소유하고, 이를 지배력의 기반으로 삼아 촌락을 다스려 왔다. 당시 촌장들은 시조들의 천강신화와 함께 혈연적 우위 속에 대대로 ‘事鬼神 尙祭祀’의 직분을 수행하며 촌락을 다스려 왔던 결과, 촌민들로부터 외경받아 존장자로 인식되었다. 결국 육촌장들이야말로 신라사에 있어서 ‘사귀신 상제사’하여 세인들로부터 외경받던 사로지역의 전통적 존장자 자충이었던 것이다.⁷²⁾

V. 맺음말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한 불신 가운데 신라의 건국시기와 사로국의 기반이 된 육촌의 실재에 대한 불신은 뿌리가 깊다. 그럼에도 『삼국사기』에 육촌의 출자가 조선 유민이며 신라의 건국 기년이 BC 57년으로 설정된 것은 신라인들의 기억과 전승에 기반한 것이다. 곧 신라인들은 자신들의 족적 유래와 건국의 기층집단이 고조선 멸망 이후 남하한 집단임을

72) 김병곤, 앞의 책, 2003, 147~153쪽.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불분명한 건국 기년에 대해서 고조선 멸망 이후 최초의 혁신세 갑자년을 임의 선택할 수 있었다.

물론 건국기 육촌의 실재를 불신하여 육촌은 중고기 육부의 역급 또는 축차적으로 성립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실린 혁거세의 건국신화를 보면 혁거세가 건국시조임에도 불구하고 육촌민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는 수동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건국신화의 원형을 보다 더 자세히 기록한 『삼국유사』에는 육촌장이 모두 천강자임을 천명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연맹왕국기 왕위를 교립한 박·석·김의 삼성집단은 그들의 시조가 천강자임을 내세워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모두 주장했다. 그런데 육촌이 중고기 성립하였다면, 육촌은 자신들의 시조를 왕실과 동격의 천강자로 내세울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육촌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을 고려하면 육촌은 실재했으며 혁거세집단보다 경주 일대에 선주했던 조선 유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고고학계의 견해에 따르면 사로국 건국은 위만조선의 문화역량을 경험한 혁거세 집단의 경주 유입과 연결시킨다. 이에 필자는 박씨 집단보다 경주 일대에 선주한 육촌 집단을 연의 동방 경략 이후 비파형 동검과 이형 동기를 지닌 유민의 남하로부터 준왕 집단의 남하시기 와중에 경주 일대에 정착한 세형동검과 주조 철부를 지닌 고조선 유민으로 이해하였다. 당시 선진 청동기 철기 문화를 지닌 육촌민은 경주에 정착하며 기존 지식묘축조 집단과 결합하여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한편 육촌장이 천강자임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 촌장회의에 자제들이 동석하였음은 육촌이 지닌 사회성격의 일단을 반영한다. 각 촌은 천강자를 시조로 삼아 직계후손이 계보상 우위에 선 핵심가계로 시조가 지닌 종교적 권위를 이어받고 전통적 관습에 따라 대대로 촌락 지배권을 소유했다. 곧 육촌은 공동의 조상신을 모시는 혈족 체계에 기반하여 아직은 계층 분화가 미약한 사회로 혈연적 지연적 유대관계를 중요시하는 씨족 사회로

볼 수 있다.

육촌민의 남하시기 고조선은 사제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자연히 육촌민은 제정일치적 사회 성격이 강한 시기의 유민이었다. 당연히 촌장들도 이와 동일한 유형의 지도자였으니, ‘事鬼神 尙祭祀’하여 사로 지역의 世人들로부터 오랫동안 외경받아 온 전통적 존장자 자충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이다.

【참고 문헌】

1. 저서

- 강봉원, 『The role of warfare in the formation of the state in Korea :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approaches』, 박사학위논문, University of Oregon, 1995.
- 江原大博物館, 『양구 고인돌』, 1992.
- 國立光州博物館, 『康津 永福里 支石墓 發掘調查報告書』, 1983.
- 今西龍, 『新羅史研究』, 近澤書店, 1933.
- 김병곤, 『신라 왕권 성장사 연구』, 학연문화사, 2003.
-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1986.
- 김재원·윤무병, 『韓國支石墓研究』, 국립박물관, 1967.
- 金貞培, 『韓國古代의 國家起源과 形成』, 高麗大出版部, 1986.
- 金哲堧, 『韓國古代社會研究』, 서울대학교出版部, 1990.
- 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 I (古代篇)』, 一潮閣, 1982.
- 李基東,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 李炯佑, 『신라초기국가성장사연구』, 영남대출판부, 2000.
- 文暻鉉, 『新羅史研究』, 慶北大出版部, 1983.
- 宣石悅, 『“三國史記” 新羅本紀 初期記錄 問題와 新羅國家의 成立』,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6.
- 聖林文化財研究院, 『慶州汶山里青銅器時代 遺蹟 - III·IV구역 -』, 2012.
- 辛鍾遠, 『新羅初期佛教史研究』, 民族社, 1992.
- 申滄植, 『新羅史』,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 李德星, 『朝鮮古代社會研究』, 正音社, 1949.
-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 이용조, 『한국의 선사문화』, 평민사, 1981.
- 李鍾旭, 『新羅國家形成史研究』, 一潮閣, 1982.
- 李賢惠,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一潮閣, 1984.
- 李炯佑, 『新羅初期國家成長史 研究』, 영남대학교출판부, 1999.
- 張秉吉, 『宗敎學概論』, 博英社, 1975.
- 全南大博物館, 『昇州 大峙里 支石墓群』, 1991.
- 전남대학교박물관, 『同福댐 水沒地區 支石墓 發掘調查報告書』, 1982.
- 全德在, 『新羅六部體制研究』, 一潮閣, 1998.

- 중앙문화재연구원·경주시, 『慶州 蘿井 - 본문 -』, 2008.
 千寬宇,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1989.
 崔秉鉉,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1992.
 湖南文化財研究院, 『完州 葛洞遺蹟』, 2005.
 三品彰英, 『三國遺事考證 (上)』, 堦書房, 1975.

2. 연구 논문

- 강봉원, 「한국 지식묘 연구의 이론과 방법론」 『한국 지식묘(고인돌)유적 종합조사·연구(I) - 분포, 형식, 기원, 전파 및 사회복원 -』, 문화재청, 서울대학교박물관, 1999.
- 姜仁求, 「斯盧六村과 國家의 成立段階 試考」 『考古學으로 본 韓國古代史』, 學研文化社, 1997.
- 權五榮, 「新羅六村의 위치문제와 首長의 성격」 『新羅文化』 14, 1997.
- 金秉模, 「韓國 巨石文化의 源流에 관한 研究(I)」 『韓國考古學報』 10·11合, 1981.
- 金元龍, 「斯盧六村과 慶州古墳」 『歷史學報』 70, 1976.
- 金貞培, 「君長社會發展段階試論」 『百濟文化』 12, 1979.
- 金杜珍, 「新羅建國神話의 神聖族觀念」 『韓國學論叢』 11, 1989.
- 金炳坤, 「新羅 初期 王의 性格 再考」 『韓國古代史研究』 16, 1999.
- 金炳坤, 「新羅 初期王權의 成長과 天神信仰」 『韓國思想史學』 13, 1999.
- 金炳坤, 「古朝鮮 王權의 成長과 支配力의 性格 變化」 『東國史學』 34, 2000.
- 金炳坤, 「新羅 骨品制度 成立期의 思想的 基盤」 『新羅文化』 22, 2003.
- 김병곤, 「斯盧國의 출범과 신라인의 건국관」 『신라사학보』 23, 2011.
- 김병곤, 「신라의 왕경 오악과 (소)금강산」 『新羅文化』 43, 2014.
- 金龍星, 「土器에 의한 大邱·慶山 地域 古代墳墓의 編年」 『韓國考古學報』 35, 1996.
- 김용성, 「영남지방 목관묘와 사로국」 『韓國古代史研究』 82, 2016.
- 金元龍, 「慶州九政里出土金石竝用期遺物에 對하여」 『歷史學報』 1, 1952.
- 金元龍, 「金海 茂溪里 支石墓 出土品」 『東亞文化』 1, 1963.
- 金元龍, 「斯盧六村과 慶州古墳」 『歷史學報』 70, 1976.
- 金元龍, 「三國時代의 開始에 관한 一考察」 『韓國考古學研究』, 一志社, 1987.
- 金在弘, 「新羅 中古期의 村制와 地方社會 構造」 『韓國史研究』 72, 1991.
- 김재홍, 「신라[사로국]의 형성과 발전」 『역사와 현실』 21, 1996.

- 金鍾璿, 「新羅 社會統制의 宗教的·思想的 背景 - 특히 三國時代를 中心으로 -」 『아시아문화』 8, 1992, 224-227쪽.
- 金鍾徹, 「慶尙北道清道郡禮田洞의 出土遼寧式銅劍」 『岡崎敬先生退官記念論叢 東アジアの考古と歴史(上)』, 1987.
- 金哲垞, 「新羅上古世系와 그 紀年」 『歷史學報』 17·18, 1972.
- 羅喜羅, 「新羅初期 王의 性格과 祭祀」 『韓國史論』 23, 1990.
- 리순진, 「우리나라 서북지방의 나무곽무덤에 대한 연구」 『고고민속논문집』 8, 1983.
- 文暲鉉, 「新羅國 形成過程의 研究」 『大丘史學』 6, 1973.
- 朴淳發, 「우리나라 初期鐵器文化의 展開過程에 대한 약간의 考察」 『考古美術史論』 4, 1994.
- 朴洪國 외, 「斯盧 6村의 위치에 대한 試論」 『新羅文化』 21, 2003.
- 宣石悅, 「新羅 骨品制의 成立基盤과 그 構造 ; 麻立干時期의 支配體制 整備와 관련하여」 『釜大史學』 11, 1987.
- 孫秉憲, 「韓國先史時代의 무덤」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1987.
- 申東河, 「新羅 骨品制의 形成過程」 『韓國史論』 5, 1979.
- 沈奉謹, 「慶南地方 青銅遺物의 新例」 『釜山史學』 4, 1980.
- 吳英勳, 「新羅王京에 대한 考察」 『慶州史學』 12, 1987.
- 李健茂, 「扶餘合松里遺蹟出土一括遺物」 『考古學誌』 2, 1990.
- 李健茂, 「唐津素素里遺蹟出土一括遺物」 『考古學誌』 3, 1991.
- 李南奭, 「青銅器時代 韓半島 社會發展段階 問題」 『百濟文化』 16, 1985.
- 李榮文, 「全南地方 支石墓 社會의 領域圈과 構造에 대한 檢討」 『先史와 古代』 5, 1993.
- 李宇泰, 「新羅의 村과 村主」 『韓國史論』 7, 1981.
- 李仁哲, 「新羅 6村의 형성과 발전」 『震檀學報』 93, 2002.
- 李鍾宣, 「細形銅劍文化의 地域的 特性」 『韓國上古史學報』 3, 1990.
- 李鍾旭, 「新羅骨品制研究의 動向」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一潮閣, 1985.
- 李鍾旭, 「新羅骨品制의 起源」 『東方學志』 30, 1982.
- 李鍾恒, 「新羅六部考」 『國民大學論文集』 1, 1969.
- 李清圭, 「細形銅劍의 形式分類 및 그 變遷에 對하여」 『韓國考古學報』 13, 1982.
- 李清圭, 「嶺南地方 青銅器文化의 전개」 『嶺南考古學』 21, 1997.
- 李賢惠, 「三韓의 ‘國邑’과 그 成長에 對하여」 『歷史學報』 69, 1976.
- 이형우, 「진·변한 諸國의 位置와 存在樣態」 『진·변한사연구』, 계명대학교 한국

학연구원, 2002.

李炯佑, 「사료국의 발전과 국읍의 변모」 『國邑에서 都城으로 - 新羅王京을 중심으로 -』,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26, 2005.

丁仲煥, 「斯盧六村에 對하여」 『釜山 文理大學報』 3, 1960.

丁仲煥, 「斯盧六村과 六村人의 出自에 對하여」 『歷史學報』 17·18合, 1962.

朝鮮總督府, 『博物館陳列圖鑑』 12, 1943.

曹永鉉, 「金陵 松竹里遺蹟 發掘調査」 『第17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 發表要旨』, 1993.

朱甫喆, 「三國時代의 貴族과 身分制 - 新羅를 중심으로」 『韓國社會發展史論』, 一潮閣, 1992.

池健吉, 「長水南陽里出土靑銅器·鐵器一括遺物」 『考古學誌』 2, 1990.

池健吉, 「支石墓社會의 復原에 關한 一考察」 『梨花史學研究』 13·14合, 1983.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 (上)」 『韓國學報』 2, 1976.

村上四男, 「新羅王都考略」 『朝鮮學報』 24, 1962.

崔夢龍, 「全南先史考古學의 再照明」 『龍鳳』 12, 1981.

崔夢龍, 「全南地方 支石墓社會와 階級의 發生」 『韓國史研究』 35, 1981.

崔在錫, 「新羅의 六村·六部」 『東洋學』 16, 1986.

최정필, 「新進化論과 韓國 上古史 解說의 批判에 對한 再檢討」 『韓國古代國家形成論 - 考古學으로 본 國家』, 崔夢龍·崔盛洛 편저,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崔鍾圭, 「慶州 九政洞一帶 發掘調査」 『博物館新聞』 139, 1983.

최종규, 「무덤에서 본 三韓社會의 構造 및 特徵」 『韓國古代史論叢』 2, 1991.

岡内三眞, 「朝鮮의 異形有文靑銅의 器製作技術」 『考古學雜誌』 69-2, 東京; 日本考古學會, 1983.

藤田亮策 外, 「南朝鮮に於ける漢代의 遺蹟」 『大正11年度古蹟調査報告』 2, 1992.

末松保和, 「新羅建國考(1932)」 『新羅史의 諸問題』, 東洋文庫, 1954.

末松保和, 「新羅六部考」 『新羅史의 諸問題』, 東洋文庫, 1954.

武田幸男, 「新羅六部와 그 展開」 『碧史李佑成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 -』, 1990.

榎本杜人, 「金海貝塚甕棺箱式石棺 - 金海貝塚再檢討(承前)」 『考古學雜誌』 43-1, 1957.

三品彰英, 「骨制品社會」 『古代史講座』 7, 學生社, 1963.

津田左右吉, 「三國史記의 新羅本紀について」 『古事記及び日本書紀の研究』, 1924.

Abstract

Saro Six Villages Before the Appearance of Hyeokkeose Forces

Kim, Byoung-gon

Silla people(新羅人) remembered that six villages people is Foundational group of founding countries and southboudned refugees since the fall of Gojoseon. Therefore they set up the first Gapjjanyeon(甲子年) after the fall of Chosun as foundational year. Samguksagi(三國史記) and Samgukyusa(三國遺事) said Yukchonjang(六村長) is Cheongangja(天降者) and people who chose Hyeokkeose(赫居世). That means considered related Articles about six villages ,six villages is understood to have arrived at home before a Hyeokkeose group.

According to archaeological circles Saroguk(斯盧國) founding is related to kyeongju inflow of the Hyeokkeose group experinced WimanJoseon's(衛滿朝鮮) Cultural competence. six villages that were entered before the Park group could be understand as Gojoseon refugees Who had Bipahyeongdonggeom(琵琶形銅劍) and Ihyeongdonggi(異形銅器) after Yeon's eastern domination or who had Sehyeongdonggeom(細形銅劍) and Jujocheolbu(鑄造鐵斧) setteld on Gyeongju(慶州) when Junwang(準王) move south moment. six villages people of advanced culture at the time was settled in gyeonju and take the initiative through combination with jiseokmyo(支石墓) groups.

The fact that the six villages headman had their son in the meeting reflects the social character of six villages. villages headman had the religious authority of the cheongangja's direct descendants and was in control of the villages generations. That means six villages is kindred who enshrined communal Ancestral god and unity of the church and state community. Furthermore when six villages people move south moment Gojoseon was ruled by a man of Priest King(司祭王)'s character. Naturally six village's headman had same character. Therefore they are the people who serve the ghost in Silla, respect memorial service(事鬼神 尙祭祀) and be respected by people in the country as a traditional jonjangja(尊長者) Jachoong(慈充).

Key Words : Yukchonjang(六村長), Refugees of Gojoseon(古朝鮮 遺民),
Cheongangja(天降者), Priest King(司祭王), Jonjangja(尊長者),
Jachoong(慈充).

논문 투고일 : 2016. 10. 29

심사 완료일 : 2016. 11. 18

게재 확정일 : 2016. 12. 02